



GLOBAL PARTNERS USA, INC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 714.774.9191 Fax. 714.774.9192

E-Mail: admin@gpusa.org yoonsnews@protonmail.com Homepage: www.gpusa.org



백뚜르

5학년 때부터 우리와 공부했던 백뚜르가 9학년을 마치고 입학한 콜리지(3년)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식에 초대 받아 꽃을 사 들고 갔습니다. 상장도 제일 많이 받았고, 우수한 학생에게 수여되는 빨간색 띠를 목에 두르고 졸업생 대표로 감사(인사말)도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할 줄 알았는데 원고도 보지 않고 한국어로 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앞으로 나가 백뚜르 부모님이 앉아가신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 아들을 향한 대견함이 가득합니다. 아들이 받은 여러 상장을 열어 자랑스레 보여주시는 어머니의 얼굴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졸업생 단체 사진 촬영 시간에 어느 한국 선생님이 우릴 찾아와 인사를 건네며 말씀 많이 들었다고, 백뚜르가 한국 부모님이라 부르는 분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며

인사하셨습니다. 우리가 키운 것도 아니고 원래 좋은 아이라고 멋지게 대답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백뚜르, 백뚜르 아빠, 엄마, 그리고 우리 부부 이렇게 다섯이 근처 맛집에 찾아가 식사하며 대화 나눴습니다. 백뚜르가 찾아서 가는 현지 식당은 모두 맛집이었고,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이 자리에 초대해준 것도 고마웠고, 자신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우리 덕분이라 말해준 것도 고마웠고, 한국 부모님이라고 우리를 여겨준 것도 고마웠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좋은 결실을 얻은 백뚜르를 칭찬합니다.



백뚜르가 토픽시험 3급을 따고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한국으로 언어연수를 위해 들어 갑니다. 6개월의 언어 연수동안 좋은 성적을 얻게되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뚜르가 원하는 꿈이 이뤄지길 소망합니다. 그를 향한 다른 소망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온 믿음의 친구 유준이로 부터 보은을 들었지만 자신은 모스림이라며 거절했던 백뚜르가 한국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국인 아빠 말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백뚜르가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 그를 만나기 위해 저희도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뚜르가 다니게 될 OO 대학의 스터 단체를 찾아가 학생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 백뚜르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맛난 밥도 한 끼 사주려고 합니다. 한국인 부모님의 고향에 온 백뚜르를 위해 이젠 우리가 맛집을 찾으려고 합니다.

컴퓨터 수업

센터에서는 컴퓨터 수업이 한창입니다. 드그스에서 사역하다 이곳으로 오신 선생님의 외동아들 드리가 수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드그스이랑 물가가 비슷하거나 더 쌀 줄 알았는데 큰 오산이었습니다. 이번에 대학 진학하는 드리는 아직 한 번도 컴퓨터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21세기에 그런 일이 한국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센터 컴퓨터 교실에 있는 현 랩탑 가운데 좋은 사양으로 골라 안겨 주었습니다. 드리에게 우리 센터에서 MS PPT를 가르쳐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컴퓨터를 모르니 러시아어를 잘하는 드리가 조금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드리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준비하며 자신도 배우고, 용돈도 벌게하면 좋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마침 몇년 전 한국에 나가있는 동안 한달간 PPT를 배웠으며, 가르쳐 보기로 하고 현재 기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시간을 드리가 가르치고 나머

지 1시간은 제가 엑셀을 (저도 기본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맥으로 갈아탄지 20 년도 넘어 오랜만에 만져보는 엑셀이 어색하네요.

방학이라 많이 참석하지 못하리라 예상은 했지만 예닐곱명 수강하기로 한 아이들 가운데 첫 날 두명, 둘째날 3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효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계속해야 하나” 서로 질문하고, “효율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 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것 처럼 보이는 일이 죄인을 위해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동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된 자들을 위해 아들을 바치는 그 것만큼 어리석어보이고 비효율적인 일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생명의 가치를 그리 무겁게 쳐주시는 하나님의 셈법을 생각하니 이 곳에 공부하러 나온 한 아이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나 시간과 노력이 아깝기는 커녕,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고귀한 생명에게 가 닿는 시간과 공간과 여건 모두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기적이 요구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도 작은 교실에서 일어납니다.



알톤아라산

작년 겨울방학에 이어 이번 여름방학에도 막내가 저희가 사는 곳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오고 싶어서 왔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친구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비취척에 나갈일도 별로 없는 택함이는 거의 집에서만 콧 박혀 지냅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비용보다 왕복 항공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방학동안은 기숙사도 비워야하고, 미국 물가도 비싸고, 기왕 그리웠던 엄마 밥도 먹고.

기록을 하지 않아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택함이에게 무슨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집에만 있는 아들이 안쓰럽고 미안해서 어디 함께 바람 쐬러 다녀오자는 류의 부탁이었을텐데 아들이 대꾸가 없었습니다. 난 네게 구걸하지는 않을 거야 속으로만 생각했다가, 내가 뭘 생각을 하는 거지 반문했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나 구걸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셨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독생자 ㅇㅈ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리 만무하지요.

택함이 덕분에 큰 맘먹고 알톤아라산이라는 산에 올랐습니다. 키국에서 제일 유명한 곳 중 하나인데 저희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웬만한 4륜구동으로는 오르지 못하는 해발 ~2,700 미터의 험산에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걸어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운행하는 4륜구동 차량으로는 1시간 반 가량 걸리는 거리를 6시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목적지 약 2킬로미터를 남기고 비도 와서 길이 질척였습니다. 하루 숙박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다시 5시간 하산하였습니다. 자연에 한해서 미국에 없는 건 없다, 미국은 어디보다 더 스케일이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선입견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산 후 동행해주신 카라콜 선생님 댁에서 하루를 더 묵고 6시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온 3박 4일의 짧고도 고된 일정이었지만 몸이 회복된 지금은, “내 인생에 이 도전은 아마도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 멀리 간데없고 언젠가 좋은 사람들과 다시, 그리고 좀 더 멀리 다녀오고픈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의 여정이 그럴 것 같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삭신이 쑤시는 아득한 여정. 목적지가 어딘지, 도착은 할런지, '내 인생에 이 도전은...' 이런 생각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여서 기어코 오르게 되는 여정. 아픈 건 모두 잊고 좋은 것만 기억되는 그런 여정. 우리 계속 올라가 보아요.

삼남매 엄마 이야기 50

여름방학동안 택함이와 와서 함께 지냈습니다. 하람이와 주영이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 부엌에서 내가 해 주는 밥을 먹는 시간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안그래도 외식 싫어하는데다 혼자만 있으니 더더욱 집밥만 고집하게 됩니다. 택함이 밥 챙겨주면서 마음은 또 주영이 생각을 합니다. 룸메이트들은 다들 부모님댁으로 가고 혼자 남은 아파트에서 외롭진 않을지, 제대로 먹고는 있을지, 홀로 서야하는 이 시간들이 두렵지는 않을지 이런 저런 생각들이 기도가 됩니다. 이제 뭔가를 찾아야하는 아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엄마의 모습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잠시 쉬어갈 곳도 없는 곳에 아이들만 두고,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 미안함과 두려움으로 올 여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80이 넘는 아버지께서 길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밤새 이것저것 검사후 너무 더워서 생긴 온열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80넘은 아버지를 간호하셔야 하는 80넘은 엄마의 전화를 받으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밝은 목소리로 그 힘든 시간들 들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제가 죄송했습니다.

한마음으로는 우리 애들 걱정하면서 한마음으로는 부모님께 무한한 죄송함을 느끼면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원래 우리 나이에는 부모님 돌보고 아이들 챙기느라 바빠야한다는데, 아무것도 못하면서 이 곳의 아이들 곁에 있어야 하는 제모습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봅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제 형편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찬양이 입에서 맴도는 요즘입니다

기도해주세요

1. 백두르가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2. 9월부터 새로 일하게 될 스태프가 센터 일을 잘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3. 센터 새학기 시간표를 잘 만들 수 있도록
4. 뒷뜰 물이 범람하여 우물 모터가 잠겼는데 잘 복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5. 재웅 현순 4역자가 성실하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6. 재웅, 현순, 하람, 주영, 택함에에게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도록